

韓 國 語

№ 1 시오가마 신사터

307자

시라오이에 모토진야를 구축하고 경비하던 센다이의 번사(藩士)들은 진야가 내려다보이는 동서쪽의 낮은 언덕에 주군의 영지로부터 내려받은 수호신으로 두 개의 신사를 건립해 진야를 수호했습니다.

동쪽 언덕에는 센다이 성 전체를 수호하는 아타고 신사, 서쪽에 해당하는 이 언덕에는 해상 안전을 수호함과 동시에 무덕(武德)의 신을 모시는 오슈이치노미야 시오가마 신사를 건립했습니다. 두 신사는 모두 **안세이(安政) 3년**(1856년) 모토진야 구축과 동시에 건립되었으며, 주군의 영지와 같은 시기에 축제를 개최하는 등 고향을 멀리 떠난 번사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현재 신사는 **쇼와(昭和) 29년**(1954년) 태풍으로 무너진 진야의 적송을 이용해 재건되었습니다. 이 적송은 번사가 센다이에서 가져온 묘목이 자란 것입니다.

매년 8월 10일에는 지역 주민들이 예대제(例大祭)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 2 우치쿠루와

283자

시라오이 모토진야는 '나가누마 류'라는 병법에 따라 원과 호 형태의 토성과 해자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크게 우치쿠루와와 소토쿠루와로 나누어 건축되었으며 토성을 둘러싸는 형태로 울타리를 쳤습니다.

우치쿠루와는 직경 108m 정도의 약간 일그러진 원형의 토성과 해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토성의 높이는 약 2m이며 입구 부분은 3m입니다. 내부에는 본부, 관리소, 곡창, 병기고, 마구간 등이 설치되었고 우물도 있었습니다. 소토쿠루와는 거주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우치쿠루와에는 관리 부문의 기능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 3 소토쿠루와

356자

소토쿠루와는 동쪽의 토성과 해자, 서쪽의 작은 하천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토성의 높이는 약 3m이며 입구에서 우치쿠루와까지 210m 길이의 토성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호를 그리는 형태의 토성을 구축하였고 '고구치(虎口)'라 불리는 토성을 마련해 내부를 직접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내부에는 2 번부터 5 번까지의 번호가 달린 숙소와 훈련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훈련 공간에는 네 개의 마장과 활터가 병행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우치쿠루와의 시설까지 포함해 건물터 등에 대한 발굴조사가 시행되었고, 위치나 규모 등을 확인한 후 복원되었습니다. 평면적인 복원 방법을 통해 건물의 평면도 등을 현재에 재현했습니다.

또한, 번사들이 고향의 풍경을 시라오이에 재현하기 위해 센다이에서 가져온 적송 묘목은 수령이 160 년으로 홋카이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중 하나가 되어,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모토진야의 흘러가는 세월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 4 사적 시라오이 센다이 번 진야터

291자

막부 시대 홋카이도의 모습을 극명하게 전해주는 시라오이 센다이 번 진야터는 테마 박물관 센다이 번 시라오이 모토진야 자료관과 함께 국가 지정 사적공원으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시라오이 초에서는 2020년 4월 아이누 문화 부흥을 위한 내셔널센터 민족공생 상징공간 '우포포이' 개설을 계기로 진야터를 더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인도교 보수 및 다언어 가이드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였으며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이용자 여러분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자가 사적에 대한 이해나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행사나 전시회 등 박물관 활동을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우수한 가이드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 5 번사 묘지

298자

센다이 번이 시라오이를 거점으로 경비 활동을 한 12년 동안 사망한 번 관계자 수는 남성 19명, 여성 4명으로 총 23명에 달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지만 혹독한 추위나 야채가 부족하여 발생한 각기병이 사망 원인으로 추측됩니다.

해당 묘지를 포함한 진야터는 메이지 유신 이후 한동안 주민들의 기억에서 잊혔습니다. 그 후 메이지(明治) 39년(1906년) 잡초에 파묻혀 쓰러진 번사의 묘비가 발견되자 인근 주민들이 '아오바회'를 결성했고 번사의 공양과 시오가마 신사 재건, 예대제(例大祭) 거행에 힘을 쏟았습니다.

현존하는 묘비는 11개이며 매년 8월 10일에 위령제를 치릅니다. 또한 샤다이에는 진야를 지키고 자결한 다이칸 구사카리 운타로의 묘도 모셔져 있습니다.

№ 6 센다이 번 모토진야 소개

371자

에도 시대 말기에 북방 경비를 위해 구축된 시라오이 센다이 번 모토진야는 경비를 하던 센다이 번사들이 이 곳을 떠나며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고 그 후 1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광대한 부지에 자연의 지형을 잘 활용해 지어진 모토진야는 홋카이도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또한 하코다테와 고료카쿠와 함께 막부 시대 에조치의 모습을 전해주는 유적으로서 역사적,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높아 쇼와(昭和) 41년(1966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해당 자료관은 초(町)제도 시행 30주년을 기념해 북방을 경비하고 시라오이의 기초를 구축한 센다이 번의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쇼와 59년(1984년)에 개관했습니다. 또한 진야터는 사적공원으로 개방되어 공기가 맑고 녹음이 푸르른 여름은 물론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을 보러 홋카이도 내외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평생 교육과 휴식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7 에조치에 대한 시찰

4 2 2 자

미국 페리 제독의 내항 후 2 년이 지난 해인 **안세이(安政) 2 년**(1855 년), 막부는 동북 지방의 5 개 번과 마쓰마에 번에 에조치의 분할 경비를 명했습니다. 센다이 번에서는 에조치 시찰을 위해 미요시 겐모쓰와 우지이에 히데노신을 보냈습니다.

당초 막부는 교통 요충지로 번영하던 도마코마이의 유후쓰에 북방 경비의 거점인 모토진야를 구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겐모쓰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였고 동서로 작은 하천이 흐르는 천연 요새이며 하코다테에서 가까운 시라오이 우토칸베쓰가 최적의 지역이라고 보고하고 막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안세이 4 년(1857 년) 6 월에 완성된 모토진야는 도내 24 곳에 설치된 진야 중 최대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또한 시라오이보다 동쪽에 위치한 히로오, 앓케시, 네무로, 구나시리 섬의 도마리, 에토루후 섬의 후레베쓰에는 데바리(出張) 진야라는 작은 요새를 구축해 대응했습니다.

시라오이의 모토진야는 방위상의 거점으로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 8 북방의 위협이 고조되다

3 4 1 자

러시아는 17 세기 무렵부터 점차 아시아 진출을 강화해 캄차카를 영유했습니다. 그 후 18 세기에는 지시마 열도를 따라 남하하기 시작해 일본 근해에도 번번이 무역선이 접근했습니다.

안에이(安永) 7 년(1778 년) 홋카이도 동쪽 기리탓푸에 러시아인이 상륙해 막부에게 통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정세에 막부는 에조치 방위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나가사키에서 공부한 덕분에 세계정세를 잘 파악하고 있는 센다이 번의 구도 헤이스케와 하야시 시헤이는 누구보다 빨리 세계로 눈을 돌린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남하나 외압을 경고하기 위한 책을 쓰고 타국의 침략에 대해 경종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막부는 오히려 민심을 흐트러트린다며 그들을 처벌했습니다.

칸세이(寬政) 4년(1792년) 러시아 사절인 락스만이 네무로에서 하코다테를 거쳐 당시 에조치의 수도였던 마쓰마에로 내항해 통상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영국의 배들도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게 되자 북방 문제는 점차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에조치의 경비는 원래 마쓰마에 번의 임무였으나 방대한 미지의 토지, 에조치는 재정력과 병력 부족으로 막부나 다른 번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 막부에서는 에조치의 정보를 얻기 위한 조사를 시행하고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칸세이 11년(1799년) 막부의 직할지(제 1차 막부 영토기)가 된 후 에조치 각지에 막부의 관리가 배치되었습니다. 마쓰마에 번이 통치하던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자본이 투입되었으며 행정권이 에조치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각 번에 의해 진야가 설치되어 방위력도 향상되었습니다.

19세기 초 러시아의 남하 정책이 일단락되어 에조치는 다시 마쓰마에 번의 영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기에는 다시 긴장이 고조되었고 각국의 통상요구도 거세졌습니다.

막부는 **안세이(安政) 원년**(1854년)에 미국과 미일 화친조약을 체결하고 하코다테와 시즈오카 현 시모다에 위치한 항구를 개항하며 200년이 넘는 쇄국정책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듬해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에서는 일본과 러시아의 국경이 에토루후 섬과 우루프 섬 사이로 정해졌으며 가라후토는 양국의 잡거지가 되었습니다.

북방 경비의 필요성을 통감한 막부는 마쓰마에 번의 거성 부근을 제외한 에조치를 다시 직할지로 삼고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막부의 명령을 받은 센다이 번에서는 미요시 겐모쓰를 파견해 에조치를 순찰했습니다.

이렇게 센다이 번에 의한 에조치 출병, 북방 경비가 시작된 것입니다.

안세이(安政) 3년(1856년) 5월 에조치 경비의 제 1 진으로 약 220명의 번사(藩士)가 센다이성을 출발했습니다. 최고 책임자 우지이에 히데노신을 필두로

한 이들 일행에는 번사 외에도 번내 각지에서 모인 하급 무사와 의사, 목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출발에 필요한 경비는 파견된 사람들이 각각 부담했으며 자금 마련이 어려운 사람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라오이까지의 이동 일수는 순조로우면 20 일 정도였지만 쓰가루 해협 도항을 위해 아오모리에서 배를 기다리는 기간이나 비바람으로 인한 정체 등이 겹치는 경우 2 개월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센다이 번의 진야 경비를 위한 자금도 빠듯했기 때문에 일행은 자급자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번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척하기도 했지만, 에조치의 생활은 아이누의 지혜나 지원, 노동력에 의지하는 부분도 상당히 컸습니다.

№11 시라오이 진야 건설

334자

모토진야 건설은 시라오이 마에하마의 집회소라 불리는 관청을 거주택으로 삼고, 대장인 우지이에 히데노신이 직접 지휘해 급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모토진야는 약 1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지어졌지만, 깊은 해자를 파고 높은 토성을 쌓은 후 그 내부에 번사가 생활하는 6 동의 숙소를 비롯한 광, 마구간, 6 개의 문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주군의 영지로부터 시오가마 신사와 아타고 신사를 내려받아 모셨습니다.

건설에는 센다이 번에서부터 동행한 목수 외에 시라오이 교역소 담당자가 수배한 자들이나 해당 지역의 많은 아이누가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세이(安政) 4년(1857년) 6월 18일에 성대한 상량식이 거행되었습니다.

№12 시라오이 모토진야의 구조

275자

시라오이 모토진야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서에 작은 하천이 흐르는 천혜의 요새 속에 높은 토성을 쌓고 깊은 해자를 판 형태였습니다. 그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라오이하마에서 북동쪽으로 약 2km 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66,000 m², 우치쿠루와라 불리는 원의 직경은 125m 이며 소토쿠루와라 불리는 이중원의 길이는 216m, 폭은 120m 였습니다. 토성의 높이는 2~3m 이며 835m 까지 연장되어

있었습니다. 목초지를 포함한 총면적은 1,237,500 m²로 방대했습니다.

해자 주변에서는 지금도 당시의 번사들이 보았던 애반딧불이를 볼 수 있습니다.

№13 센다이 번의 경비

7 2 1 자

200년 이상 이어진 평화로운 세상에 익숙해진 무사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무사의 기풍을 고무하는 것은 진야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진야에서는 병학 강의나 무예 훈련을 비롯한 화승총 사격, 대포 발사 훈련, 나아가 완전 무장으로 실시하는 실전 훈련인 '수라전' 등이 실시되었습니다. 다른 번과 비교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훈련은 매우 엄격했다고 합니다.

무사들의 임기는 대략 1년이며 초봄인 4월 무렵 센다이로부터 부임해 와 이듬해에 다음 근무자와 교대했습니다. 여름은 그럭저럭 괜찮지만 익숙해질 수 없는 에조치의 혹한이 무사들을 괴롭혔습니다.

또한 막부는 **안세이(安政) 6년**(1895년) 9월부터 러시아를 비롯한 미국, 유럽 열강이 에조치에 진출할 것을 경계해 방위상 중요 거점이 된 에조치의 분할 경비 외에 **경호**도 각 번에게 맡깁니다. 이로 인해 시라오이는 센다이 번의 영토가 되었으며 민정을 담당하는 다이칸이 배치되었습니다.

당시의 지도를 확인하면 광대한 에조치를 센다이 번 외에 마쓰마에, 쓰가루, 아키타, 난부, 쇼나이, 아이즈의 번이 경비와 **경호**를 맡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센다이 번은 가장 서쪽의 시라이오를 시작으로 히로오, 앓케시, 네무로 그리고 멀게는 구나시리 섬과 에토로후 섬에도 데바리(出張) 진야를 설치했습니다. 모두 시라오이로부터 수백 km 떨어진 홋카이도의 동쪽 끝과 그에 딸린 섬들이며 이는 당시 동에조치라고 불리는 원대한 지역이었습니다. 기후 풍토는 시라오이보다 한층 더 혹독하며 진야 건설이나 경비가 매우 힘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의 시라오이는 에조치 경비의 중요 거점으로, 센다이 번을 비롯한 많은 무사와 상인이 오가는 활기 넘치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번사 개인과 아이누의 교류는 '규율'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14 아이누족과의 관계

470자

만엔(万延) 원년(1860년) 봄, 현지 인수인계를 마친 시라오이는 막부의 직할지에서 센다이 번의 영지가 되었습니다. 첫 민정 책임자로는 아이자와 기텐다가 다이칸으로 임명되었으며 시라오이 마에하마의 집회소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센다이 번에서는 다이칸은 해당 지역에 사는 아이누와 접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여겨 유능한 인재를 배치했습니다.

한편 시라오이 교역소의 경영은 교역소 담당자인 노구치야 마타조가 담당하였으며 지역민과 협력하며 다시마나 말린 정어리 등을 생산했습니다. 노구치야는 평생 센다이 번을 위해 일하고 막부의 번사 철수에도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렇듯 시라오이에서는 센다이 번의 '규율'에 따라 다이칸이나 교역 담당자가 당시 교역소 내 400여 명의 아이누와의 공생을 위해 노력한 결과 비교적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이누에 대한 치하와 위로의 뜻을 담은 행사인 오무샤는 어업이 끝난 초겨울에 교역소 내의 아이누를 불러 모으고 지켜야 할 '규율'을 들려준 후 연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또한 노구치야 마타쿠라의 공적비가 고조하마에 있으며 4대 다이칸 구사카리 운타로의 묘가 샤다이에 모셔져 있습니다.

№15 번사 철수와 진야의 마지막, 미요시 겐모쓰의

공적 668자

케이오(慶応) 4년(1868년) 1월 메이지 신정부가 15대 장군 도쿠가와 요시노부에 대한 추토령을 내렸고 보신 전쟁이라 불리는 국내를 양분하는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센다이 번에는 신정부로부터 막부 측 아이즈 번에 대한 토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번 내에서 의견이 나뉘기는 하였지만 센다이 번은 오슈에쓰 번 동맹을 체결하고 막부군으로서 신정부군과 대립하게 되었고 전쟁의 불길은 동북 지역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막부와 대립한 센다이 번의 전국이 불리해지자 신정부군의 엄격한 추궁이 시라오이 진야에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하코다테의 노구치야로부터 추토군이

시라오이로 파견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대장 고다마 가쿠노신은 번으로 돌아가 군을 재정비하기 위해 당일에 진야에서 철수했습니다.

다이칸인 구사카리 운타로는 센다이 번사가 철수한 후에도 민정 책임자로 시라오이에 남아 진야와 이 땅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밀려오는 신정부군의 공격으로 부상을 당하고 샤다이의 바닷가에서 고향인 센다이를 바라보며 자결했습니다.

한편 모토진야의 건설지를 시라오이로 정하고 스스로 2대 대장이 된 미요시 겐모쓰는 센다이 번주를 뒷받침하는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막부의 탐험가로 알려진 마쓰우라 다케시로와도 교우관계였으며 시가나 회화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인 문화인이기도 했습니다.

보신 전쟁에서는 신정부를 따라 아이즈 정벌을 주장했고, 번내 막부파와 대립한 결과 53 세에 자결해 무사로서의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정부는 '근왕의 대의를 굳게 지킨 충의의 무사'로 그를 기려 유족에게 200 냥을 하사했습니다.

겐모쓰의 고향인 이와테현 남부의 **이치노세키 시** 후지사와 초에는 겐모쓰의 공적을 기리는 비가 세워져 있습니다.